

# 47년 된 청사... 신청사 건립 촉각

### 익산시, 1970년 준공 안정성 문제 대두 정현을 시장 간담회서 "2021년 게 공사 완료"



정현을 익산시장이 2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청사 건립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또 국비확보는 물론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KTX 익산 선상 역사를 활용, 신청사를 증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의 국비 확보와 민간자본 유치 계획은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청사건립이 시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나온 것이다. 실제 2017년 현재 익산시의 부채는 BTL·BTO를 포함해 3,400억원 규모다. 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은 지난 1970년 12월 준공된 현 청사가 47년이 경과해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현 청사는 심각한 노후화는 물론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 시민 불편 등을 야기해 왔다. 시는 안전성을 담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호남 3대 도시의 위상에 맞는 청사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신청사 건립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며 "국비 등을 확보해 오는 2021년 게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장소에 대한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시민이 원한다면 건립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 군산 앞바다 해상 테러 '이상 무'

### 해경, 대규모 대응 훈련 실시 11개 유관기관 150여명 참가



군산해양경찰서가 21일 군산 앞바다에서 해상 테러에 대비한 항만방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테러에 대비한 훈련이 군산 앞바다에서 진행됐다. 군산해양경찰서가 21일 "국가 중요 시설을 보호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산 국제여객선 터미널과 1만7천급 국제여객선(스다오호, 군산~중서도 운항)에서 해상테러 대응 항만방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압작전은 항공기에서 레펠 하강한 해양경찰 특공대가 전술제압 작전을 펼치고 테러범을 저격한 뒤 조타실의 인질구조와 폭발물 처리 등의 모든 과정이 시연되면서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 또, 이번 훈련은 군(軍)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협업훈련도 동시에 진행돼 책임 항만에 대한 완벽한 해상테러 대비 체계 구축과 통합방위 작전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훈련 종료 뒤 채광철 군산해경서장은 "방심하고 경계를 늦출 때 테러 위협은 가장 높아지는 만큼 언제나 가장 빠르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방과 대응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훈련 종료 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며, 국가 중요 임해시설에 대한 보안상 황도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사랑운동 캠페인 전개 기초질서·친절 실천 강조

간인 오후 5시30분부터 한 시간에 걸쳐 익산역, 구경철서 사거리, 고래등 오거리에서 진행됐다. 익산사랑운동 시민사회단체 회원 120여명이 참여해 각 교차로별로 익산사랑운동 어깨띠를 착용하고 기초질서, 친절실천, 나눔과 배려 등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현을 시장은 "익산사랑운동 추진으로 성숙한 시

민의식을 키워 익산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사랑운동 추진협의회는 발족 후 2018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익산사랑 다짐 릴레이, 거리 캠페인, 시 주요행사시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정영원 기자

# 추석 전통시장 '새 활력' 군산시 장보기 행사 개최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군산시가 21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운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나온 주공시장에서 개최했다. 시에서는 이날 진행된 한준수 부시장의 선행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필두로 군산시 전 부서 공무원들과 군산시의회, 군산시여성단체, 한국GM 군산공장, 군산해양경찰서, 서부발전소 등 지역 내 여러 기관·단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군산의 여러 전통시장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준수 부시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중·대형 소매점과 온라인 거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알뜰하게 명절을 준비하고 전통시장만의 특별한 정(情)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은 물론 주차장 조성 과 공동화장실 신축, 아케이드 설치, 특화를 통한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농업기술센터가 21일 군산시 선도농업인과 올해 벼농사 시범사업을 추진한 150여명의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2017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진행했다.

# 군산 명품쌀 경쟁력 제고 탄력

### 벼농사 종합평가회 진행 농업인 150여명 참여 성과·문제점 등 되짚어

합포장 견학과 함께 관내에서 육성 중인 시범사업 단지에 대한 현장평가가 이어졌다. 올해 군산시 벼농사의 주요성과로는 농가들이 자가 채종한 종자의 발아능력 검정시험을 통해 우량종자 623톤을 안전하게 공급(소요량의 105%)했으며, 전면적인 노동력절감 농자재 지원(상토, 맞춤비료, 육묘상처리제), 주요 병해충발생 최소화(19.8%), 쌀 품질향상 및 안전영농을 위한 과학영농 기술지원(쌀품질분석, 유해물질분석, 토양검정시비처방) 등이 꼽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벼농사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기술지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지원, 노동력 절감기술의 보급을 통해 안전농산물의 확대 공급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힘써 군산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꼼짝마!"

### 군산시 특별감시 기간 설정 내달 13일까지 상황실 운영

군산시는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내달 13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시에서 가동하는 특별감시반은 환경기초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추석 연휴를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홍보와 환경순찰, 단속, 기술지원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추석 연휴 전(9월 20일~10월 2일)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 취약영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중(10월 3일~9일)에는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환경오염행위 및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염의 의심되는 하천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펼친다. 또한 추석 연휴 후(10월 10일~13일)에는 폐수처리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 관련 기술지원 활동을 이어나간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및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 등의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공고히 하며 감시의 눈을 쉬지 않을 것"이라며 "예방중심의 감시활동과 함께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